

노 동 동 향

# 경제일반

홍서연\*

## ◆ 실물경제지표 호조

- 2001년 11월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 출하 등의 실물경제지표는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인하여 호조(표 1 참조)
  - 산업생산은 반도체, 기타운송장비, 음향통신기기, 자동차 등의 생산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9% 증가
  -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부가가치 기준)은 2001년 11월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하여 연중 가장 높은 증가수준을 보임.
  - 제품출하는 내수출하(6.2%)와 수출출하(8.0%)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1% 증가
  - 재고는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 전년동월대비 2.3% 증가에 그쳐 2000년 11월에 전년동월대비 17.9%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됨.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6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전년동기대비 1.6%하락
-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1년 11월에 96.9(1995=100 기준)를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침(표 2 참조).
  -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포인트 상승하여 지난달에 이어 증가세 기록
  - 선행종합지수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건축허가면적, 재고순환지표 등의 지표가 상승하여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hong@kli.re.kr).

<표 1>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1995=100)

	2000			2001					
	9월	10월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생 산									
제 조 업	15.8	11.9	6.4	-3.2	-6.2	-4.9	4.7	-1.6	4.8
서 비 스 업 <sup>1)</sup>	8.6	8.4	8.6	4.4	4.1	6.7	8.5	6.5	7.8
출 하	15.3	9.4	3.8	-0.9	-5.8	-5.6	4.6	-0.8	7.1
재 고	13.4	17.5	17.9	14.9	15.7	14.7	11.5	4.9	2.3
평균가동률	77.7	76.0	75.2	74.1	71.0	73.2	75.0	71.5	73.6

고 : 서비스업 생산은 『2001년 11월중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참조한 것임.

자료 : 통계청, 『2001년 11월중 산업활동 동향』, 2001. 12.

<표 2> 경기종합지수 동향

전월대비 포인트, 1995=100)

	2000			2001					
	9월	10월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p	11월p
선행종합지수	0.2	-0.4	-1.3	0.5	0.3	0.4	1.6	0.5	1.2
동행종합지수	-0.2	-0.2	-0.7	0.0	-0.2	0.1	0.6	0.7	0.5
후행종합지수	0.5	0.9	-0.4	0.2	0.4	0.3	0.6	-0.3	-0.1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1.6	101.0	99.9	97.0	96.6	96.2	96.4	96.8	96.9

고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2001년 11월중 산업활동 동향』, 2001. 12.

◆ 물가상승폭은 둔화추세 유지,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4.3%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1년 5월을 정점으로 둔화추세로 반전하였고 9월부터는 3%대로 낮아지고 12월에는 3.2%를 기록(표 3 참조)
  - 공업제품의 물가상승률은 하락하였으나, 집세와 농축수산물가격의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
  -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 2001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4.3% 상승하였고, 생활물가는 전년대비 4.6% 상승하여 생활물가의 상승폭이 다소 높았음(표 4 참조).
  - 공업제품물가는 안정된 양상을 보였고, 개인서비스물가도 평균상승률보다 낮은 반면 공공요금의 상승

- 2001년 12월 중 전년동월대비 생산자물가는 0.7% 하락하였으며 이는 1999년 10월(-0.2%)이후 처음 하락세로 반전(표 3 참조)
  - 이는 농림수산물 및 서비스물가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가격이 국제가격 하락 및 국내의 수요부진으로 큰 폭의 내림세를 지속한 것에 기인
- 2001년 연간 생산자물가는 전년대비 1.9% 상승(표 4 참조)
  - 이는 전력·수도·가스 등 공공요금(7.3%)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으나 농림수산물 및 공산품물가의 오름세 둔화로 전년(2.0%)에 비해 약간 낮은 상승에 그침.

<표 3> 물가지수 동향

전위: 전년동월대비 %

	2000			2001						
	10월	11월	12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2.6	3.2	5.2	5.0	4.7	3.2	3.6	3.4	3.2
생활물가 상승률	3.9	3.5	4.5	5.9	5.5	5.0	2.6	3.2	2.8	2.4
생산자물가 상승률	1.8	1.3	1.7	2.8	2.7	2.0	1.2	0.6	0.1	-0.7

자료: 한국은행, 『2001년 12월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2. 1.  
 통계청, 『2001년 12월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1. 12.

<표 4> 연간 물가지수 동향

전위: 전년대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소비자물가 상승률	4.5	4.9	4.5	7.5	0.8	2.3	4.3
생활물가 상승률	-	6.0	6.0	11.1	2.4	3.6	4.6
생산자물가 상승률	4.7	3.2	3.9	12.2	-2.1	2.0	1.9

자료: 한국은행, 『2001년 12월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2. 1.  
 통계청, 『2001년 12월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1. 12.

### ◆ 수출입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표 5 참조)
  - 2001년 12월 중 수출(통관기준)은 12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9.6%나 감소하여 11월(-17.1%)보다 감소율이 증폭
  - 2001년 12월 중 수입(통관기준)은 113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1% 감소
- 2001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12.5% 감소한 반면, 수입은 전년대비 12.1% 감소(표 6 참조)
  - 2001년 수출은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와 대외여건 악화로 두 자리수의 감소율을

기록

- 2001년 수입 역시 설비투자 및 수출의 부진, 환율상승(평가절하) 및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

○ 한편 경상수지는 2001년 11월에 7.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표 5 참조)

<표 5> 대외거래 동향

단위: 백만달러, %

	2000		2001							
	11월	12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 상 수 지	952.8	1314.2	900.1	438.8	-194.8	708.4	254.0	695.8	-	
수 출 액 <sup>1)</sup>	14,989	14,977	12,938	11,408	11,770	12,454	12,093	12,421	12,036	
	전6)	전1)	전15.2)	전21.1)	전20.4)	전17.7)	전20.7)	전17.1)	전19.6)	
수 입 액 <sup>1)</sup>	14,160	13,176	11,733	11,091	11,359	11,704	11,518	11,558	11,324	
	전0.7)	전4.7)	전11.0)	전18.9)	전15.5)	전11.9)	전18.3)	전18.4)	전14.1)	

고 : 1) 통관기준.

2) 전)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2001년 11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2001. 12.

산업자원부, 『2001년 수출입 실적 평가 및 2002년 수출입 전망』, 2002. 1.

<표 6> 연간 대외거래 동향

단위: 억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액 <sup>1)</sup>	1,250.6	1,297.2	1,361.6	1,323.1	1,436.9	1,722.7	1,506.5
	전0.3)	전7)	전0)	전2.8)	전6)	전9.9)	전12.5)
수 입 액 <sup>1)</sup>	1,351.2	1,503.4	1,446.2	932.8	1,197.5	1,604.8	1,411.1
	전2.0)	전1.3)	전3.8)	전35.5)	전8.4)	전4.0)	전12.1)

고 : 1) 통관기준.

2) 전)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자원부, 『2001년 수출입 실적 평가 및 2002년 수출입 전망』, 2002. 1.

## 고 용 동 향

## 고 용

홍서연\*

## ◆ 2001년 12월 중 실업률은 전월보다 상승한 3.4%

- 2001년 12월 중 실업자수는 762천 명(실업률 3.4%)을 기록하여 11월의 714천 명보다 증가(표 1 참조)
  - 실업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하여 2000년 12월의 전월대비 0.5%포인트 상승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3%포인트 증가한 21,347천 명을 기록하여 취업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7%포인트 증가한 22,109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감소한 14,533천 명

&lt;표 1&gt;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2000			2001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경 제 활 동 인 구	22,333(0.7)	22,164(0.3)	21,750(0.4)	22,563(1.0)	22,524(1.6)	22,109(1.7)
참 가 율	61.6	61.1	59.9	61.7	61.5	60.3
취 업 자	21,573(2.0)	21,366(1.2)	20,857(1.2)	21,863(1.3)	21,810(2.1)	21,347(2.3)
실 업 자	760	797	893	699	714	762
실 업 륜	3.4	3.6	4.1	3.1	3.2	3.4
비 경 제 활 동 인 구	13,930(1.6)	14,127(2.2)	14,576(2.0)	14,022(0.7)	14,092(-0.2)	14,533(-0.3)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01년 12월 고용동향』, 2002. 1.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hong@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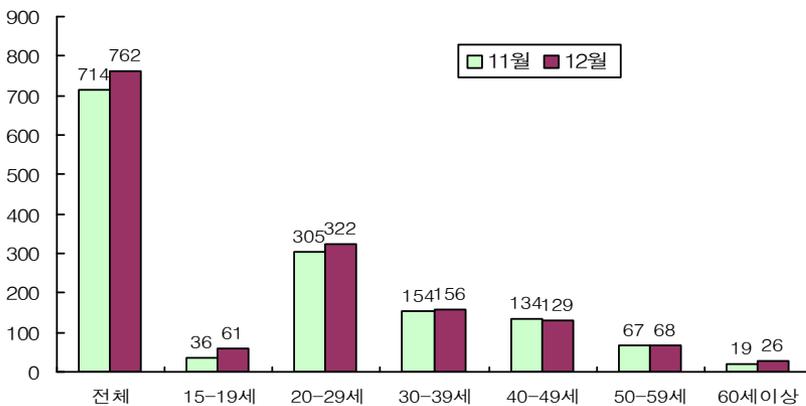
- 전월대비 경제활동상태별 변화를 보면, 실업자는 48천 명 늘어나고, 취업자는 463천 명 감소
  - 2000년 12월에는 실업자가 전월대비 96천 명 증가하고, 취업자는 509천명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0.3%로 11월의 61.5%에 비해 1.2%포인트나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감소하고, 전월대비 441천 명 증가

◆ 실업률 : 청년층 큰 폭 상승

- 2001년 12월 실업자의 전월대비 증가분 중 80% 이상은 청년층(15~29세)의 실업자의 증가에 의한 것(그림 1 참조).
  - 10대 연령층의 실업자수는 25천명, 20대 연령층의 실업자수는 17천명 증가
- 청년층 실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방학을 맞은 재학생들(졸업 예정자 포함)의 구직 활동 증가
  - 그러나 10대 청년층의 취업자는 전월대비 13천명 증가하였으나 20대 청년층의 취업자는 오히려 13천명 감소

[그림 1] 연령계층별 실업

(단위:천 명)



자료 : 통계청, 『2001년 12월 고용동향』, 2002. 1.

### ◆ 상용근로자 비중은 전월에 비해 상승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6~7월에 일시 하락하고 계절적 요인으로 8월에는 상승하고, 9~11월에는 다시 하락하였으나 12월에는 소폭 상승(표 2, 그림 2 참조).

-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전월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한 반면 일용직의 비중은 0.4%포인트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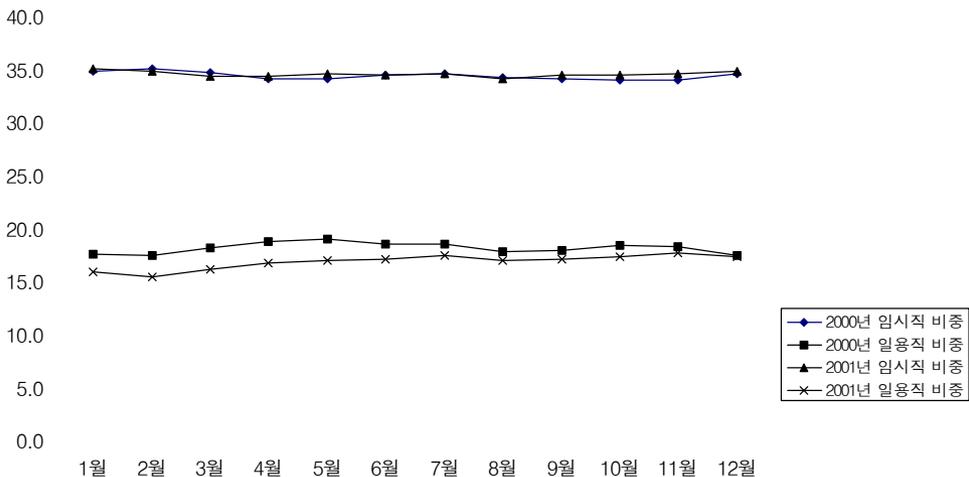
<표 2>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변화

(단위: 천 명, %)

	200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 금 근 로 자	12,924	12,738	12,975	13,365	13,543	13,542	13,562	13,216	13,452	13,486	13,638	13,625
상 용 근 로 자	(49.2)	(49.8)	(49.6)	(49.0)	(49.6)	(48.6)	(48.2)	(49.1)	(48.6)	(48.4)	(47.9)	(48.0)
임 시 근 로 자	(35.0)	(34.8)	(34.3)	(34.3)	(34.5)	(34.4)	(34.5)	(34.0)	(34.4)	(34.4)	(34.5)	(34.8)
일 용 근 로 자	(15.8)	(15.4)	(16.1)	(16.7)	(16.9)	(17.0)	(17.3)	(16.9)	(17.0)	(17.2)	(17.6)	(17.2)

자료: 통계청, 『2001년 12월 고용동향』, 2002. 1.

[그림 2] 2000년과 2001년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비중의 분포



자료: 통계청, 『2001년 12월 고용동향』, 2002. 1.

◆ 임시·일용직 중 약 9% 상용직으로 전환

- 2001년 1월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표본을 11월까지 추적한 결과 임시근로자의 11.4%, 일용근로자의 2.5%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됨(표 3 참조).
  - 1월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표본을 매달 추적하여 일단 상태가 변화하면 관찰을 멈추는 한편 상태가 변하지 않은 표본에 대해서는 다음 달의 상태를 추적
  - 1월에 임시직 임금근로자 중 11월까지 임시직 임금근로자로 잔존하는 비중은 35.5%인 반면 일용직의 경우는 21.4%로 다소 낮음.
  -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하는 경우는 임시직의 경우 15.3%인 반면 일용직의 경우는 29.9%에 이름.
  - 임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된 비중은 4.3%에 불과한 반면 일용직에서 임시직으로 전환된 비중은 15.9%로 높은 수준

<표 3> 비정규근로자의 변화

(단위: 천 명, %)

		1월 임시직에서	4,520 (100.0)	1월 일용직에서	2,041 (100.0)
2월과 11월 사이에	상용근로자로		514 ( 11.4)	상용근로자로	51 ( 2.5)
	임시근로자		1,604 ( 35.5)	임시근로자	324 ( 15.9)
	일용근로자		196 ( 4.3)	일용근로자	437 ( 21.4)
	자영업		43 ( 1.0)	자영업	21 ( 1.0)
	고용주		175 ( 3.9)	고용주	101 ( 4.9)
	무급가족종사		38 ( 0.8)	무급가족종사자	33 ( 1.6)
	실업자		296 ( 6.5)	실업자	159 ( 7.8)
	비경제활동인구		691 ( 15.3)	비경제활동인구	610 ( 29.9)
	표본탈락		963 ( 21.3)	표본탈락	304 ( 14.9)

주 : ( )안의 숫자는 1월의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서 2~11월 사이에 상태가 최초로 변하였을 때 그 상태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01년)를 패널화.

- 1월에 임시직 임금근로자 표본을 성별·학력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상태 변화를 보면, 상용근로자로 전환하는 비중이 남성의 경우 13.5%로 여성(9.6%)보다 높게 나타나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17.4%)이 고졸이하(10.1%)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층이 12.8%로 다른 연령층(약 10%)보다 높음(표 4 참조).

〈표 4〉 성별·학력별·연령별 임시근로자의 변화

(단위: 천 명, %)

		1월 임시직 에서	상용직 으로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 족종사	실업	비경활	표본 탈락
성 별	남 자	2025 (100.0)	274 (13.5)	698 (34.5)	82 (4.0)	24 (1.2)	90 (4.4)	11 (0.5)	164 (8.1)	221 (10.9)	461 (22.8)
	여 자	2495 (100.0)	240 (9.6)	906 (36.3)	115 (4.6)	19 (0.8)	85 (3.4)	26 (1.0)	132 (5.3)	470 (18.8)	502 (20.1)
학력별	고졸이하	3720 (100.0)	375 (10.1)	1337 (35.9)	183 (4.9)	34 (0.9)	140 (3.8)	36 (1.0)	236 (6.3)	596 (16.0)	781 (21.0)
	대졸이상	800 (100.0)	139 (17.4)	267 (33.4)	13 (1.6)	9 (1.1)	35 (4.4)	1 (0.1)	60 (7.5)	95 (11.9)	182 (22.8)
연령별	15-29세	1678 (100.0)	215 (12.8)	458 (27.3)	50 (3.0)	7 (0.4)	26 (1.5)	10 (0.6)	151 (9.0)	303 (18.1)	458 (27.3)
	30-54세	2375 (100.0)	250 (10.5)	928 (39.1)	124 (5.2)	35 (1.5)	131 (5.5)	22 (0.9)	131 (5.5)	296 (12.5)	459 (19.3)
	55세 이상	467 (100.0)	48 (10.3)	218 (46.7)	22 (4.7)	2 (0.4)	18 (3.9)	6 (1.3)	14 (3.0)	92 (19.7)	46 (9.9)

주 : <표 3>의 주 참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01년)를 패널화.

- 임시직(1월)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한 시기를 보면 514천 명 중 30.9%가 8월에, 20.6%가 2월에, 16.0%가 3월인 것으로 나타남(표 5, 그림 3 참조).

〈표 5〉 임시직의 상용직으로 전환 시기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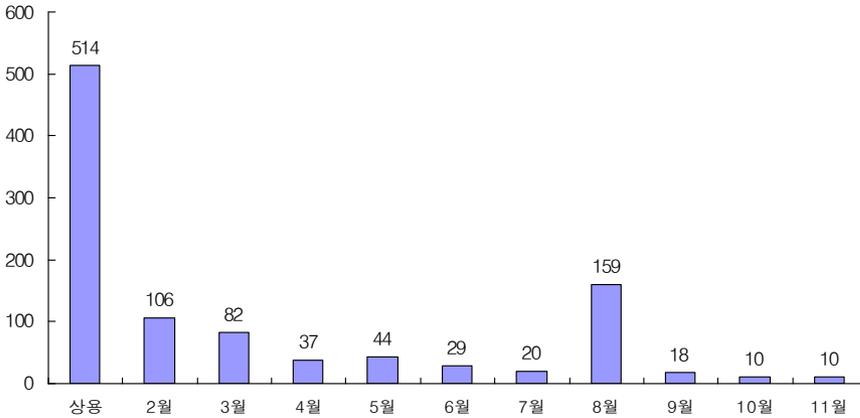
전환 근로자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514	106	82	37	44	29	20	159	18	10	10
(100.0)	(20.6)	(16.0)	(7.2)	(8.6)	(5.6)	(3.9)	(30.9)	(3.5)	(1.9)	(1.9)

주 : <표 3>의 주 참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01년)를 패널화.

[그림 3] 임시직의 상용직으로 전환 시기의 분포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01년)를 패널화.

◆ 2001년 노동시장: 경기둔화에도 낮은 실업률 지속

- 실업률은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3.7%의 낮은 수준을 기록(표 6 참조)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한 60.8%로 나타나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 수준(62% 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취업자는 21,362천명으로 전년대비 301천명(1.4%) 증가하여 2000년에 전년대비 3.8%증가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
  - 실업자는 819천명으로 전년대비 70천명(-7.9%)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14,303천명으로 전년대비 0.8% 증가에 그침.

<표 6> 연간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5 세 이 상 인 구	34,842(1.6)	35,362(1.5)	35,765(1.1)	36,139(1.0)	36,484(1.0)
경 제 활 동 인 구	21,662(2.0)	21,456(-1.0)	21,634(0.8)	21,950(1.5)	22,181(1.1)
참 가 율	62.2	60.7	60.5	60.7	60.8
취 업 자	21,106(1.4)	19,994(-5.3)	20,281(1.4)	21,061(3.8)	21,362(1.4)
실 업 자	556	1,461	1,353	889	819
실 업 륜	2.6	6.8	6.3	4.1	3.7
비 경제 활 동 인 구	13,180(1.1)	13,906(5.5)	14,131(1.6)	14,189(0.4)	14,303(0.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2001년 12월 고용동향』, 2002. 1.

노	동	동	향
---	---	---	---

## 임금 및 근로시간

강승복\*

### ◆ 임금상승률 전년동기보다 낮은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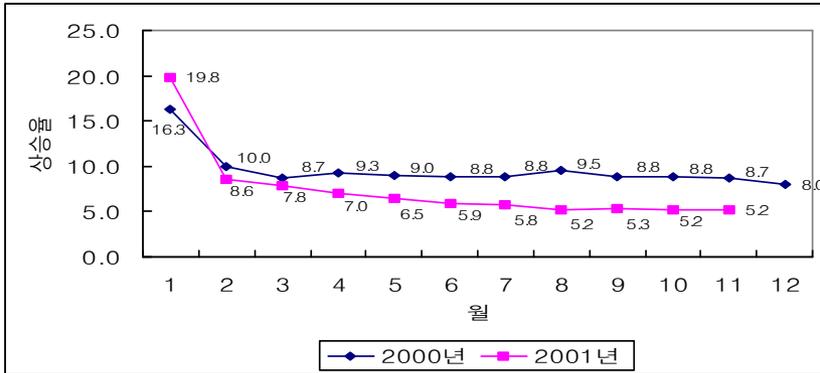
- 임금상승률 수준은 6월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3~4% 포인트 낮은 수준
  - 2001년 11월 누계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1,711천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2% 상승하였으나 전년동기의 상승률 8.7%에 비해서는 3.5% 포인트 하락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1,792천원)은 5.8% 상승에 그쳐 임금상승률이 작년보다 크게 둔화
- 임금상승률의 둔화는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기인
  - 2001년 11월 현재 경기는 내수 회복세, 대외여건 악화로 요약가능
  - 수출은 미국의 경기둔화 가속화, 일본의 장기불황 등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IT부문의 해외수요 위축, 미국 테러사태 등 대외여건 악화로 지속적인 감소세
  - 지속적인 경기하락의 영향으로 임금상승률도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가 임금상승률 둔화를 주도

- 2001년 11월 누계평균 임금상승률 추이를 내역별로 보면, 모든 내역에서 임금상승률의 둔화가 지속되었지만, 특히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의 상승률이 급감
  -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정액급여 상승률은 6.5%로 전년동기에 비해 0.9%포인트 낮아졌음.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그림 1] 작년 동월대비 임금상승률 추이(누계평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반면에 초과급여와 특별급여 상승률은 -1.4%와 3.6%로 전년동기에 비해 15.8% 포인트, 8.1%포인트나 하락
- 1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정액급여 상승률은 6.6%로 전년동기에 비해 0.9%포인트 낮아졌으며,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 상승률은 각각 0.5%, 5.2%에 그침.

<표 1>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

(단위: 천원, %)

	1999. 11월 누계평균		2000. 11월 누계평균		2001. 11월 누계평균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임금총액	1,495 (-)	1,546 (10.6)	1,626 (8.7)	1,682 (8.8)	1,711 (5.2)	1,779 (5.8)
정액급여	1,094 (-)	1,105 (5.7)	1,174 (7.4)	1,188 (7.5)	1,250 (6.5)	1,267 (6.6)
초과급여	116 (-)	130 (30.1)	133 (14.4)	148 (14.1)	131 (-1.4)	149 (0.5)
특별급여	285 (-)	311 (23.3)	318 (11.7)	345 (11.2)	330 (3.6)	363 (5.2)
실질임금	1,259 (-)	1,302 (9.8)	1,340 (6.4)	1,386 (6.5)	1,351 (0.8)	1,405 (1.3)
소비자물가	118.7 (0.8)		121.3 (2.2)		126.6(4.4)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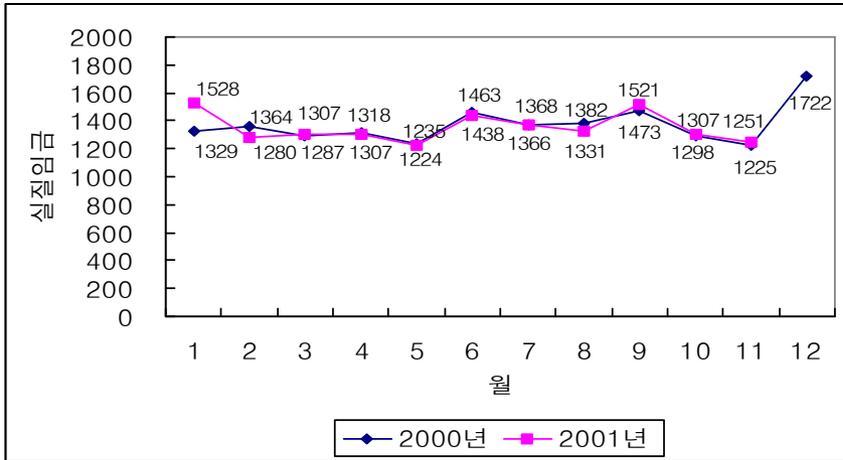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 실질임금 하락세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11월 누계평균 1,351천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8% 상승에 불과하고 9월이후 소폭 하락하는 추세
  - 임금상승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질임금은 작년수준을 유지

[그림 2] 실질임금추이(당월평균)

(단위: 천원)



주 : 실질임금 =  $\frac{\text{임금총액}}{\text{소비자물가지수}}$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건설업은 구인난 속에서 임금이 하락세를 지속

- 임금상승률 동향을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전년동기보다 높아졌으나 그 외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전년동기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음. 특히 건설업에서는 6월을 제외하고는 2001년 11월 현재까지 매월 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
  - 2001년 11월 누계평균 임금상승률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9.6% 상승하여 가장 높았던 반면, 건설업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하여 가장 낮았음.

<표 2> 산업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월, %)

	1999. 11월 누계평균		2000. 11월 누계평균		2001. 11월 누계평균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전 산 업	1,495(-)	1,546(10.6)	1,626( 8.7)	1,682( 8.8)	1,711( 5.2)	1,779( 5.8)
제 조 업	1,390(-)	1,419(13.6)	1,524( 9.6)	1,555( 9.6)	1,616( 6.0)	1,656( 6.5)
건 설 업	1,541(-)	1,647(11.1)	1,661( 7.8)	1,789( 8.6)	1,663( 0.1)	1,803( 0.8)
도소매음식숙박업	1,321(-)	1,381( 3.6)	1,432( 8.4)	1,496( 8.3)	1,571( 9.6)	1,683(12.5)
운 수 창 고 통 신	1,526(-)	1,546(15.4)	1,725(13.0)	1,752(13.4)	1,749( 1.4)	1,774( 1.2)
금융보험부동산	1,715(-)	1,760(13.8)	1,842( 7.4)	1,893( 7.6)	1,940( 5.4)	2,006( 6.0)
사회개인서비스	1,637(-)	1,763(-1.4)	1,739( 6.2)	1,866( 5.9)	1,798( 3.4)	1,935( 3.7)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 규모별 임금격차 확대

- 사업체규모별 임금격차는 5~9인 규모를 100으로 하였을 때 100~299인 규모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전년에 비해 높아져 사업체규모별 임금격차는 확대
  - 11월 누계평균 임금상승률은 300~499인 규모가 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299인 규모가 4.1%로 가장 낮았음.

<표 3> 사업체규모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격차 동향

(단위: 천원/월, %)

	1999. 11월		2000. 11월		2000. 11월	
	누계평균	임금지수	누계평균	임금지수	누계평균	임금지수
전 규모	1,495 (-)	127.5	1,626( 8.7)	129.4	1,711(5.2)	129.0
5~ 9인	1,173 (-)	100.0	1,256( 7.1)	100.0	1,326(5.5)	100.0
10~ 29인	1,345( 8.6)	114.7	1,469( 9.2)	116.9	1,578(7.4)	119.0
30~ 99인	1,397( 8.6)	119.1	1,532( 9.7)	122.0	1,639(7.0)	123.6
100~299인	1,517(11.8)	129.4	1,672(10.2)	133.1	1,741(4.1)	131.3
300~499인	1,735(12.3)	148.0	1,914(10.3)	152.3	2,085(8.9)	157.2
500인 이상	1,918(12.6)	163.6	2,109( 9.9)	167.8	2,232(5.9)	168.4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2): 임금지수는 5~9인 규모를 100으로 한 지수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 초과근로시간 감소 지속

-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2%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1% 감소
  - 2001년 11월 누계평균 근로시간은 202.4시간(주당 46.6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1.1 % 감소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2.0% 줄어 208.8시간(주당 48.1시간)을 기록
- 초과근로시간은 누계평균으로 볼 때 전년동월대비 12.8%줄어든 20.4시간(주당 4.7시간)
  - 초과근로시간은 2000년 8월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01년 5월을 저점으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임.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소폭감소 :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2001년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 15세 이상 인구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00년 49.9시간에서 2001년 49.7시간으로 0.2시간 감소
  - 이것은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 공히 근로시간이 소폭하락한데서 기인

<표 4>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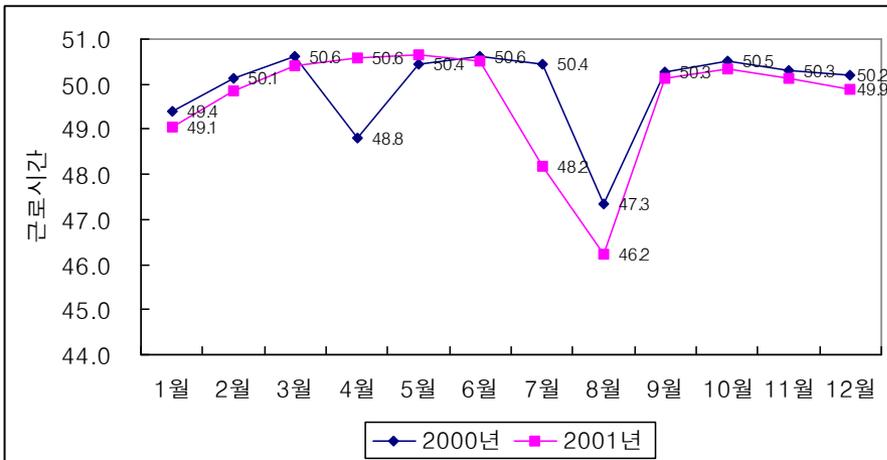
(단위 : 시간/주)

	2000	2001
전 체	49.9	49.7
상 용	51.2	51.0
임 시	51.7	51.2
일 용	43.1	4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월별 근로시간의 추이를 보면, 5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7월과 8월에는 계절적인 효과에 따라 이보다 3~4시간 적은 수준

[그림 3] 임금근로자 평균근로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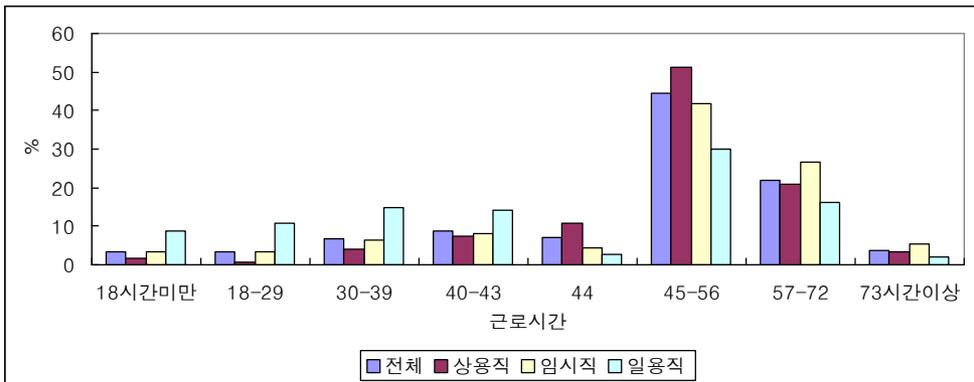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임시직이 상용직보다 장시간근로의 비중이 높아

- 2001년 상용,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대별 구조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 전년과 유사
- 2001년 현재 상용직과 임시직의 평균근로시간은 2001년 현재 각각 51.0 및 51.2시간으로 유사하나 근로시간의 시간대별 구조는 상이
  - 임시직 근로시간별 비중을 보면 상용직과 비교할때 44시간 미만 구간에서는 그 비중이 높고, 44~56시간 구간에서는 낮으며 57시간이상의 구간에서는 다시 높게 나타남.
  - 즉,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및 장시간 근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일용직의 경우 근로시간이 상용직 및 임시직보다 주당 8시간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44시간 미만 근로의 비중이 높은 반면 44시간 이상 근로의 비중은 월등히 낮은 데에서 기인

[그림 4] 종사상지위별 근로시간 분포(2001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노동동향

노사관계

이시균, 진숙경\*

I. 임금교섭 및 노사분규 동향

◆ 2001년 협약임금 인상률 6.0% 기록

- 2001년 임금교섭 현황을 살펴보면,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이 6.0%를 기록하여 전년의 7.6%에 비해 크게 둔화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임금교섭 타결업체 중 임금인상업체의 비중은 80.7%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84.4%보다 다소 감소
  - 반면 동결업체 및 하향조정업체의 비중은 각각 18.8%와 0.5%로서 전년 같은 기간의 15.5%, 0.1%보다 상승
  -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6.1%, 공공부문은 5.0%를 기록하여 민간부문의 인상률이 공공부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임금교섭에서 협약임금 인상률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보임.
- 2001년 말 100인 이상 사업장 5,218개소 중 4,857개소에서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93.1%의 진도율을 기록(표 1 참조)
  - 전년의 임금교섭 진도율 93.8%와 거의 비슷
  - 공공부문의 경우,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와 관련하여 임금교섭 진도율(77.0%)이 민간부문(93.6%)보다 상당히 저조

\* 이시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lsk@kli.re.kr), 진숙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Jindol@kli.re.kr).

- 2001년 10월까지 전년동기에 비해 임금교섭 진도율이 느리게 진행되었으나 11월 들어 전년동기 수준을 회복(그림 1 참조)

<표 1>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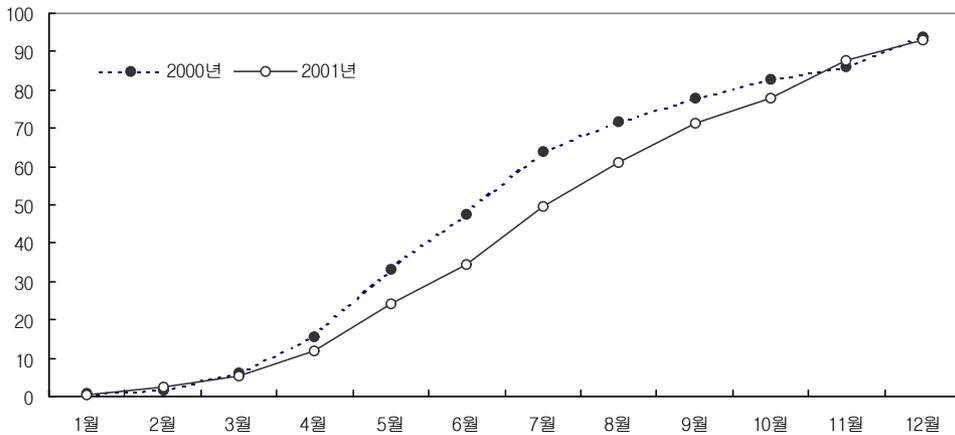
	지도대상업체 (A)	타결업체 (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전 체	5,218(5,116)	4,857(4,798)	93.1(93.8)	6.0(7.6)	6.0(7.2)
민간부문	5,053(4,963)	4,730(4,659)	93.6(93.9)	6.1(7.7)	6.1(7.2)
공공부문	165( 153)	127( 139)	77.0(90.8)	5.0(7.2)	4.4(6.9)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 )안의 수치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1]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추이(2000, 2001년)



◆ 노사분규 참가자수 및 근로손실일수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

- 2001년 노사분규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참가자수·근로손실일수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표 2 참조)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34건으로 전년의 250건에 비해 다소 감소
  - 분규참가자수와 근로손실일수는 각각 88.5천명과 1,083.4천일로서 전년의 178.0천명과 1,893.6천일 보다 크게 감소(그림 2 참조)

- 이와 같은 결과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가 감소하였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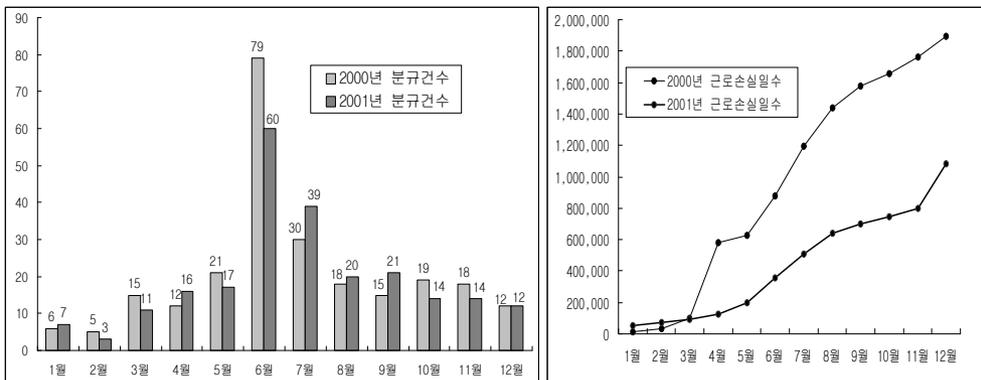
<표 2>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건, 천명, 천일)

	1999년	2000년	2001년
노사분규 발생건수	198	250	234
분 규 참 가 자 수	92.0	178.0	88.5
근 로 손 실 일 수	1,366.3	1,893.6	1,083.4

자료: 노동부.

[그림 2] 노사분규건수 및 누적 근로손실일수의 월별 추이(2000, 2001년)



## II. 노동정책 동향

### ◆ 2002년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정책

- 2002년부터 청소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도입되며 장기실업자 창업지원 확대, 실업자직업훈련제도 등 실업대책이 개선됨. 또한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새로운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고 모성보호제도가 강화되는 등 노동정책이 변화

- 노동부는 청소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정부지원인턴제’를 경력자를 선호하는 채용관행의 변화에 맞게 직장체험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제도전환을 추진하기로 함.
- ※ 1월부터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제(9,000명),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연수지원제(3만5,000명)를 각각 실시
-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위해 창업지원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였으며, 실업자 직업훈련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수당을 조정하는 한편 목표관리제와 같은 훈련효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업자 직업훈련제도를 개선
-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성과배분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지원하고,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시 법인세 손비 인정, 근로자 주식구입비 소득공제(연간 240만원), 대주주 출연시 소득공제, 3년 이상 보유시 저율(9%) 과세 등 세제지원
- 기업복지에서 소외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존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만 해당된 생활안정자금(의료비·경조사비)을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까지 확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도록 하는 작업환경측정의무와 근로자 건강진단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산전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월 20만원씩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모성보호제도 강화
- 그밖에도 정부위탁훈련제도, 고용촉진훈련제도,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제도 등이 개선·도입됨.

### ◆ 정부, 2002년 청소년 실업 종합대책 마련

- 정부는 2002년 청소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만5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4만5000여명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청소년 실업 종합대책을 수립
- 정부는 12월 17일 노동부,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실업종합대책’을 확정
- 정부는 심각한 청소년 실업문제의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단기적 고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의 신규고용 창출을 적극 권장하며, 중장기적

으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

- 단기적 고용안정대책으로 단기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30만명의 청소년에게 혜택을 부여함.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15만5,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청소년 미취업자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14만5,000명에게 혜택을
- 청소년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직장체험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프로그램’에서의 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 중장기적으로 교육기관이 교육부와 산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

### Ⅲ.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 노동계, 2002년 사업방침 마련

- 민주노총은 2002년 1월 15일 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2002년 임단투 집중시기, 지방선거 후보선출, 산별노조건설 등 2002년 사업방침안을 제시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5월말부터 진행되는 월드컵 기간과 6월중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임단투 집중시기를 5월 중순과 7월 중순으로 나눠 진행하는 사업계획안을 제출
  - 민주노총은 2002년 초기에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와 ‘근로시간 단축 투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며, 제도개선 투쟁사업은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시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
  - 조직방침으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중소영세,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약개정 등을 통한 가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직확대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2003년까지 산별노조 전환 등을 제시
  - 한편 민주노총 중앙운영위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로 추인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한다’는 정치방침을 확정
- 한국노총도 2월 7일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시할 주요 사업방침안을 준비
  - 정책기획사업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제도개선 관련 사항, 공무원노조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할 계획

- 조직확대사업으로는 산별노조 추진과 비정규직 보호사업 등을 포함
- 한편 지방선거에서의 정치활동사업으로 한국노총 지자체 후보단 및 선거지원단 구성, 공동공약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에서 기존정당과의 정책연대, 정책개발을 통해 국가 사회개혁안 제시 등을 모색할 방침

### ◆ 한국노총 새 지도부 노사정 합의 이끌어낼지 관심

- 2월7일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 예정. 주5일 근무제 등 주요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
  - 지난해 연말부터 현 위원장, 전국택시노련 위원장 등 2~3명이 차기 위원장 후보로 거론됨. 올 들어서면서 후보단일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대세를 형성
  - 그러나 1월17일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화학노련 위원장이 위원장 후보로 등록해 경선 구도로 전환
- 새롭게 탄생하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소신 있는 결단은 주 5일 근무제 등 노동법 개정과 관련 노사정 합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경선 구도는 한국노총 내 다양한 이견을 쟁점화시켜 노사정 합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국노총도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현재 제출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에 대한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 월드컵 개최를 비롯하여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들이 예정되어 한국노총도 이번 임시국회가 주 5일 근무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임.
  -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내 여야간의 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한 개정안 마련
  -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간의 이견을 좁혀 합의에 이르기 위한 협상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주장하며 2월 총력투쟁을 결의한 민주노총의 대응 또한 관심

◆ 공공부문노조 2월 시기 집중 투쟁

-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철도, 가스에 대한 민영화 법안 처리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예산 지침 등을 둘러싸고 공공부문 노조와 정부간의 긴장감이 높아짐. 공공부문노조들과 정부간의 갈등은 다양한 쟁점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그 시기는 2월로 집중되고 있음.
  - 민영화 법안을 두고 쟁점이 형성되어 있는 철도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고속철도공단노조, 발전노조 등 6개 노조는 지난해 10월말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영화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 중
  - 기획예산처의 예산 분배 방침에 반발해 정부출연기관 소산별노조인 과학기술노조와 연구전문노조가 ‘올바른 정부출연기관 혁신을 위한 과기-연전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논의 중. 정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1월30일까지 완료하고 이에 따라 예산 배정을 유보하거나 차등 배정할 경우 2월 노정 갈등이 예상됨.
  - 행정자치부의 임금인상 억제 지침 등으로 인해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지하철, 서울농수공, 서울시설관리, 서울도시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기업 노조는 ‘전국지방자치단체 공기업노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2월초 파업 계획까지 세우는 등 정부와 힘 겨루기를 벌여옴.
  -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파업 이후 항공산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움직임이 노동시간 단축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관련 노조들의 반발이 예상됨. 대한항공조종사, 아시아나항공, 공항공단, 인천국제공항 등 노조는 ‘항공필수공익지정 저지대책위’를 구성하여 2월말 대중집회를 계획하는 등 공동 행동에 들어갈 계획
  - 사회보험노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2000년 노사가 합의한 하위직 연한승진 등을 실행하는 데 제동을 걸고 있어 해고자복직 문제와 함께 쟁점이 되고 있음.
- 공공부문 노조들을 다수 포괄하고 있는 공공연맹은 다양한 쟁점으로 전개되고 있는 단위노조의 투쟁시기를 집중할 계획
  - 공공연맹은 2월 임시국회를 전후해 주5일 근무제와 민영화 관련 법안 처리 시기가 일치할 경우 민주노총 차원의 근로시간 단축 투쟁과 공공부문노조들의 사안별 투쟁을 결합시킬 예정
  - 공공연맹은 1월23일과 24일 연맹 중앙위원회와 대표자 수련회와 2월6일 연맹 대의원대회를 통해 2월말 시기 집중 투쟁 방침을 확정하고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과 결합해 대응할 계획이나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위노조 차원에서 정치적 성격의 총파업을 조직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 단위 사업장별로 쟁점이 다르고 노조의 준비정도와 내부 동력의 차이가 있으며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연맹 차원의 공동투쟁을 위한 전선의 유지에 애로가 존재
- 올 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큰 변수는 양대 선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국부유출이나 헐값매각 등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법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있어 노사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 다양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공공연맹은 2월말 3월초 연대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단위노조 대표자들과 간부들의 결의를 전제로 하여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투쟁을 조직해 나갈 방침이어서 임시국회를 전후한 불안정한 노사 국면의 태풍의 눈은 공공부문 노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 무쟁의 선언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선언으로 돌아선 배경

○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1999년, 매년 반복되던 노조 파업 투쟁을 중단하겠다고 하며 '무쟁의 선언'을 한 이래 3년간 쟁의 없는 교섭을 이끌어 왔으나 2001년 12월2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을 결의

- 2001년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총액 대비 11.5% 인상, 대학생 학자금 무상 지원 등을 주장한데 반해 공사측은 연공서열로 인한 임금 자연 상승분 등을 고려할 때 이미 14.3%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
- 공사측의 이러한 주장은 행정자치부가 2001년 지방공사 및 공단 인건비 집행 지침을 통해 호봉승급 및 각종 수당 인상분을 포함한 6% 임금 인상을 시달한 내용에 근거한 것임.
-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노사는 노사정 합의 모델인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 서울모델 공익위원들은 임금 자연증가분과 효도휴가비 50%를 제외한 임금 총액 6%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내놓음. 노조는 이를 수용했으나 공사측은 행자부 지침에 어긋난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사적 합의 기구인 서울모델의 취약성을 드러냄.
- 서울지하철노조는 교통, 주택, 의료, 시설관리, 농수산물 등 업종과 관련한 지방공기업 연대 조직인 '전국지방공기업노조협의회'(노조 26개, 조합원 2만5,000명 포괄 2001년8월 구성) 차원에서 공동 대응 모색

- ‘투쟁 노조’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서울지하철노조가 ‘무쟁의 선언’에서 파업을 선언하게 된 것은 행자부 지침 철폐로 대변되는 ‘관치행정’에 대한 반발이 직접적인 원인
  - 위원장의 99년 ‘무쟁의 선언’은 단지 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넘어서 “투쟁 중심적인 노조운동 흐름과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 그러나 현재의 ‘파업 선언’이 투쟁주의로의 노선상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양보를 파업을 무기로 획득하려는 전술로 이해됨.
  - 서울지하철노조가 준법투쟁을 비롯해 1월25일~28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2월4일 파업 돌입 일정 확정 등 투쟁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무쟁의 선언으로 표현되는 기존의 노선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짐.
  -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은 2월 공공부문노조와 민주노총 투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사전 협상과 조정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고 할 것.
- 따라서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한 지방공기업노조의 투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와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대우차 GM매각을 앞두고 대우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에서 노사 갈등

- 대우자동차의 GM매각을 앞두고 본계약 체결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단협개정을 위한 노사간 특별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나 핵심쟁점에 대해 노사간 입장차이가 매우 커 난항을 겪고 있음.
  - 2001년 11월부터 진행된 단협개정을 위한 노사교섭에서 부평공장 유지발전 방안, 정리해고자 복직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이견차로 난항
  - 대우자동차노조는 부평공장 유지발전 방안과 정리해고자 복직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부평공장 유지발전 문제는 GM이 결정할 사항이며, 정리해고자 복직문제는 ‘인력충원시 정리해고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며 노조측 요구를 거부
  - 또한 회사측은 단협개정안으로 경영에 관한 ‘노사합의’ 조항을 ‘노사협의’로 변경할 것과 노동조합 활동보장에 관한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
  - 이에 대우자동차노조는 고용·노조승계와 단협개정의 조기타결을 위해 회사측의 요구를 반영한 ‘단협개정 노조안’을 제시
  - 한편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정리해고자특별투쟁위원회’는 출근투쟁을 전개하

는 등 지속적 투쟁을 전개

- 대우자동차판매노조에서 임금체계 변경과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갈등이 심화
  - 대우자동차판매노조는 영업직 임금체계 변경(성과급 중심제)과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여 2001년 12월 1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항의집회, 농성 등 상경투쟁을 반복적으로 전개
  - 회사측은 1월 7일 영업직과 정비직 393명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를 노동부에 신고
  - 회사측이 정리해고 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는 장기투쟁을 선언하고 상경집회를 지속적으로 전개

#### ◆ 철도노조, 특별단체교섭 진행

- 철도노조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철도 민영화 법안이 상정될 경우 2월 25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천명한 가운데 특별단체교섭에 집중
  - 철도노조는 '민영화 저지', '근로조건 개선', '해고자복직'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3차례 걸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입장차가 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 한편 '운수조합원 전국 결의대회'(1월 11일), '전국 동시다발 노동부 항의집회'(1월 16일)를 개최하며 '민영화 저지'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철도노동자 결의대회'(1월 27일) 등을 개최할 계획

#### ◆ 기아자동차노조, 특별성과급 지급 합의

- 기아자동차노조는 매출증가, 현대자동차의 특별성과급 300% 지급을 이유로 잔업을 거부하며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
  - 노사협의회에서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인당 120만원 지급' 등 특별성과급 지급에 합의